

국내 건설투자 “질적 개선 시급”

“GDP 대비 15%로 높아… 증가폭 점진적 하향 조정·효율성 제고 등 질적향상 주력해야”

고령화 등으로 주택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건설투자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국내 건설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경기흐름이 부진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투자의 호조가 지속될 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올 상반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3% 뛰어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자본소득(이미 구축된 건설자본)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달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규모도 여전히 적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자본소득은 GDP 대비 2.8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과 같은 수준이며,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15%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5000~3만 달러의 중진국 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 그룹의 건설투자 비중은 보통 10% 내외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건설투자 비중도 대체로 8~10%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비주택 건설투자도 빠르게 증



한국전자산업대전 ‘open’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참여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가했다. GDP 대비 비주택 건설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10.6%로 OECD 평균(6.3%) 보다 1.7배 높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설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도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그간 국내 건설투자가 경제발전 및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돼 왔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수요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2012년부터 감소한데 이어,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주택 수요는 34만호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공급은 크게 늘었다. 2015~2016년 주택공급이 매년 4만호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규모는 가구수 증가대비 2.0배로 200만호 건설에 따라 대규모 공급과 임을 경험했던 1992~1995년의 1.8배 보다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자본소득이 성숙단계에 도달한 만큼, 이 증가폭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건설투자는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향상에 주

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권나는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은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과잉영향이 큰 사회기반 시설을 선별해 투자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건설업체의 부실위험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확충,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며 “또 경기부진에 대응해 건설투자를 늘리더라도 신규 투자보다는 사전에 필요성이 확인된 유지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금융연 “내년 경제성장률 2.5%”

민간소비 증가 1.4%… ‘설비투자 규모 2015년 수준 미달’

한국금융연구원원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6%보다 0.1%포인트 낮고,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3.0%)와는 0.5%포인트 차이가 난다.

금융연구원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2016년 금융동향과 2017년 전망 세미나’에서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1.4%로 관측했다.

임 연구위원은 “작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시행된 내수활성화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기존 소비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비증가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설비투자는 2.0%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대폭 줄어 마이너스 성장을 이룬 데 대한 기저효과다.

임 연구위원은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이 미약해 수출 증가를 정책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 설비투자 규모는 201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분기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온 건설투자 증가율은 내년에 2.1%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

율(전분기 대비)은 1분기 6.8%, 2분기 3.1%, 3분기 3.9%로 집계됐다.

임 연구위원은 “2017년 분양규모가 2015~2016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6.0%씩 감소시키는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토목건설도 내림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출은 0.4% 감소하지만 총수입은 2.4% 줄어 순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지만 설비투자의 위축으로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 순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실업률은 3.7%로 올해보다 하락하지만 이는 구직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로 인해 내년 물가상승률은 1.3%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비 등 수요기반의 물가 상승압력은 여전히 낮을 전망이다.

임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경제성장 모델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선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약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풀리시믹스(정책조합)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반도체 업계, 수요 증가·가격 상승에 ‘활짝’

D램·낸드플래시 동반 상승세 3분기 시작 4분기 이어지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

반도체 업계가 제품 가격 오름세 지속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자산업이 성장하면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분기부터 시작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동반 상승세가 4분기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대만 반도체 가격정보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의 반도체 테마 포럼

에 따르면 4분기 D램 모듈(4GB) 가격은 전 분기에 비해 30%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는 올 상반기에만 해도 뚜렷한 가격 동반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3분기부터 D램은 전자산업의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이 회복되면서 재고도 소진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추가 공급이 늘지 않으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D램 가격은 2014년 10월 3.78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거듭하다가 1.25

달러까지 떨어진 뒤 반등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21일 2.65달러까지 치솟는 등 25일 기준 2.47달러를 기록 중이다. D램 가격은 올 4분기에 3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낸드플래시 역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기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PC는 마이너스 0.8%, 스마트폰은 4.2% 성장하고, D램 시장 수요는 20.5% 성장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지만 완만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7000억원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0% 가량 대폭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역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갤럭시노트7 사태로 야기된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 전자 반도체 부문이 전분기 대비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을 예상했다. /뉴시스

KT, 5G 데이터 통신 테스트 성공

삼성전자와 함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

KT가 삼성전자와 함께 5G 규격 기반 데이터 통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연구실에서 업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번 테스트에 활용된 ‘KT 5G-SiG 규격’은 5G 핵심기술 기준을 준수하며 최대 전송속도는 높고 패킷 전송 지연 시간은 낮춘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은 “연내에 시험망을 구축해 글로벌 제조사와 상호연동시험을 추진할 것”

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훈 삼성전자 IM부문 차세대개발팀장 부사장은 “수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5G 기지국과 단말 간 데이터 통신에 처음으로 성공해 기쁘다”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해 5G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통신기술 적용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